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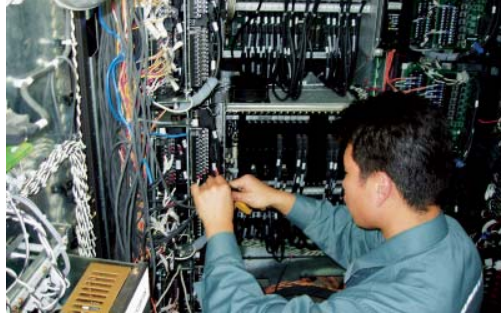
「man to man」 안전경영과 철저한 정리정돈으로 외국기업과도 어깨를 견주는 무재해 현장

— 한전기공(주) 서인천사업소 —

거리의 풀과 나무들은 더 이상 푸른 빛의 파릇한 그것은 아니지만, 땅속 깊이 숨겨 놓은 그들의 에너지와 매력은 봄을 향한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린다. 맨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감나무에서 까치들이 쉬지 않고 재잘거리는 것도 그 안의 에너지로 이듬해의 수확과 풍년을 기원하기에 그러는 것이리라. 자연의 섭리가 이렇듯, 우리네 안전도 다르지 않다. 항상 전진과 도전을 향하여 에너지를 비축하고 평소 묵묵히 수행해 온 안전활동으로 유사시 재해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숨은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다.

이에 한전기공(주) 서인천사업소(소장 김상열)를 찾아가 그들의 숨은 매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974년 (주)한아공영에서부터 시작된 한전기공(주)는 국내 유일의 발전설비정비 전문 회사이다. 그 중 인천광역시 경서동에 위치한 서인천사업소는 1992년 발족하여 현재



163명의 직원들과 2개의 협력업체가 합심하여 한국서부 서인천발전처 및 한국남부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등에 16개호기의 기계·전기 분야에 대한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깨끗한 작업환경, 안전한 근로환경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설비 자체가 일률적이지 못해 정비업무를 함에 있어 설비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광범위하고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은 물론이고, 가변성이 뛰어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상당하다고 한다.

이에 김상열 소장은 작업장 정리정돈을 필두로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안전한 현장을 꾀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한 작업장에서만이 유해요인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무 특성상 전동공구의 사용이 잦은 이곳은 공구의 전력 사용을 위해 케이블을 많이 사용한다. 이에 현장 곳곳에 전선이 즐비하여 작업자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중장비로 인한 전선의 훼손 등 감전의 위험을 상당수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04년에는 현장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공사를 실시, 현장에서 전선을 없애고 방폭공구를 병용함으로써 차후 일어날 수 있는 감전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man to man」안전경영

한전기공(주) 서인천사업소는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man to man」안전경영이 일품이다.

매일 아침 작업시작전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30초간 건강박수를 친다. 이는 혈액순환 향상은 물론, 서로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한 박수로, 동료간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김상열 소장은 아침마다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나 포옹을 나누며 그들에게 한발짝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사무실에 들어가보니 책상마다 「미인대칭」이라고 쓰여있는 거울이 제각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인대칭」이라 함은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의 앞 글자를 딴 말로 평소 밝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즐겁게 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거울속에 웃고 있는 내가 직장 동료는 물론 거래처, 고객에게까지도 웃음을 선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확산된다는 원리인 것이다. 이처럼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유대관계를 이어가며 활기차고 일할 맛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이곳 식구들의 노력은 현장 곳곳에 배어 있다.

현재 다국적 기업인 GE사와 가스터빈 성능개선공사를 수행중인 이곳은 총 8기 중 3기를 완료, 4기의 Uprate Project를 가동중에 있다.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업 자체를 진행시키지 않기로 유명한 GE사와 3기의 Uprate Project를 완료하였다는 것만 봐도 이곳의 안전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동안 수행해 온 다각적인 자율안전활동을 기반으로 2005년을 「책임 구현의 해」로 지정, 스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안전을 지킬 것이며, 지난 해 인증받은 KOSHA 18001의 유지 및 정착으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이곳 식구들의 다짐에서 저 밑에서부터 분출되는 그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성호연 기자〉

